

기자들의 직업이동이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 : 대전 지역 종이신문을 중심으로

임연희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강사

1. 문제제기

- * 1997년 IMF외환위기 후 2년간 56개사 4만여 종사자 중 8,500명(21%) 대량 해고
- * 2000년대 이후에는 보수·복지 미흡, 미래비전 부재, 업무 증가 등 자발적으로 언론 떠나
- * 기자의 3명 중 1명 이직 희망하고 지역일간지 기자 이직의향(35.3%) 타 매체보다 높아¹⁾
- * 수습으로 입사한 기자가 차장, 부장, 부국장, 국장 등 내부 승진과정 가운데 언제, 어떤 이유로, 어디로 이직했는지의 구체적 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 * 전통 저널리즘이 신문산업 변화에 따라 언론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분화하는지 지형도 그려봄
- * 언론⇒정치권⇒언론으로 옮겨 다니는 ‘폴리널리스트(polinalist: politics+journalist)’가 저널리즘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탐색

2. 이론적 논의

1) 노동시장 이론

- *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경쟁을 통해 채용, 승진, 이직하는데 이 공간이 노동시장(최석현·안동환, 2012).
- * 내부노동시장이론은 되린저와 피오레(Doeringer & Piore, 1971)를 시작으로 발전한 것으로 기업의 생산전략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기업 단독 혹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된 규칙에 의해 노동자의 배치, 전환, 훈련, 승진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노동시장(외부노동시장)과 구별.
- * 내부노동시장은 피고용인들이 제한된 입직(入職)과정을 거친 후 구조화된 사다리를 따라 기업에 특화된 기술을 숙련함으로써 임금과 지위에 따른 보상을 받으며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임영호·김은미·박소라, 2004).
- * 같은 내부노동시장이라도 전문직 내부노동시장은 입직 전부터 전문기술수련이 시작되며 숙련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류기락, 2009).
- * IMF 외환위기 이후 언론 내부노동시장 붕괴 시작해 2000년대 이후 가속화

2) 커리어 이동에 관한 기존 연구

① 언론사 내부에서의 승진과 동종업계로의 이직 행태 연구

- * 언론인 대부분 공채로 들어와 조직 내 이동 경향 강하며 기업 간 혹은 타 직업으로의 이동 미미²⁾
- * 외부 인력 영입은 특별한 수요가 있는 전문분야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임영호·김은미·박소라, 2004)

② 신문산업의 구조변화 진단하고 이직 원인 탐색

- * 기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취재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자기 개발 시간 부족으로 이직 희망했으며(배정근, 2012, 21쪽) 과열경쟁, 재정적 어려움, 자유로운 언론활동의 제약(권혁남, 1994)뿐 아니라 정직한 언론인으로서 옳지 않은 제작방침을 묵과하기 어려울 때도 신문을 떠남(장행훈, 2003).

1) 전국 언론사 소속기자 1,527명 중 다른 언론사로 옮길 의사가 있는 사람은 신문기자가 33.0%, 방송사 19.0%, 뉴스통신사 29.5%, 인터넷언론사 46.5%였으며 신문기자 중에서도 지역일간지 기자(35.3%)가 스포츠일간지(40.0%) 다음으로 이직 의향이 높았다(오슬기·배정근·김위근, 2013, 187~188쪽).

2) 신연숙, 2009; 임영호, 2004; 임영호·김은미, 2006; 임영호·김은미·박소라, 2004; 임현선, 2009; 장하용, 2004; 최낙진, 2007; 최석현·안동환, 2012; 최이숙, 2009 등.

③ 기자들의 직업 만족도와 직업 정체성 연구

- *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의 악순환 속에서 사주의 왜곡된 신문발행 목적은 편집의 자율성과 기자의 정체성을 훼손시켜(김성재, 2005) 자사 이기주의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박진우·송현주, 2012).
- * 대전지역 신문기자들 영세한 자본과 극심한 부채로 경영압박 받으며 업무 만족도 낮아(김창희, 2002).

3) 언론인의 직업 정체성 위기

- * 우리사회가 언론인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환경감시자와 정보전달자인데 제대로 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려면 직업인으로서 전문성과 안정성이 수반되어야.
- * 언론인 직업정체성: 사회 구성원에게 올바른 정보 신속히 제공하고 권력 감시비판할 때 견지되는 자의식
- * 치열한 시장경쟁과 자사 이기주의, 신뢰도 추락, 뉴미디어의 도전과 매체환경의 변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면서 언론인의 직업 규범과 정체성에도 변화의 압력.
- * 언론인 평균수명(67세) 11개 직업군 중 가장 짧고 하루 10시간 38분 근무 법정근로시간 2시간 38분 초과
- * 저임금, 광고·판매 압박 시달리는 지역 언론인 정체성 위기는 더 심각

4) 대전지역 종이신문 장 분석

(1) 종이신문 장의 속성

- * 부르디외 장이론이 미디어 장 내부의 역학관계는 물론 미디어 장과 접촉하는 다른 장들의 작동원리, 이들 사이의 관계 설명하는데 효율적
- * 지역 종이신문을 제작하는 과정과 기자들의 활동 장을 ‘지역 종이신문 장’으로 정의.
- * 부르디외는 어떤 집단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은 어떤 권력 자원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경제·문화·사회·상징자본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세계 즉, 장(場·field·champ)이라고 보았다(Benson, 1999).
- 경제자본: 화폐로 직접 전환 가능한 강력한 자본. 신문 광고비/구독료
- 문화자본: 가족의 배경이나 사회계급 등을 표상. 좋은 기사에 대한 평가나 신뢰 축적으로 얻어지
- 사회자본: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 총동원해 얻을 수 있는 자원. 연줄, 네트워크, 관계망, 인맥 등
- 상징자본: 권위, 명예, 체면 등 의미. 경제자본으로 쉽게 전환 가능

(2) 대전지역 종이신문의 현황

가) 투입된 자본의 성격

〈표 1〉 3개 신문의 주주 현황

신문명	주요 주주 지분 현황 (%)	기준일 ³⁾
대전일보	남정호(70.11)/남재두(11.60)/이지재(9.78)/정한모 외(8.51)	2015.3.26.
중도일보	부원건설(45.0)/부강건설(24.35)/지오디벨로퍼(14.61)/세종이엔씨(13.45)/김원식(1.17)	2011.9.21.
충청투데이	정남진(93.24)/박용환(6.67) ⁴⁾ /성이영(0.03)/최병태(0.03)/최인아 (0.03) ⁵⁾	2015.1.5.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정보공시센터 자료; NICE평가정보의 각 언론사 자료; 한상헌 외(2015) 33쪽에서 재구성.

- * 대전일보: 1963년 남정섭 주식 매수 후 아들 남재두 (1976년), 손녀 남상현(2011년)으로 경영권 승계
- * 중도일보: 이웅렬 창간 후 아들 이기창(1991년) 취임했지만 경영난으로 2003년 휴간했다가 김원식이 제

3) 기준일은 금감원 전자정보공시시스템 자료인 대전일보의 경우 <감사보고서> 작성 일을 기준으로 함. NICE평가정보 (주)를 활용한 충청투데이·중도일보의 경우 해당 자료에 표기한 날을 기준으로 했다(한상헌 외, 2015, 30쪽).

4) 정남진의 매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1년 <충청투데이> 전신인 <대전매일>의 비상임 이사였다.

5) 2015.1.6. 현재 관계자 현황으로 간판제조 업종인 (주)타오기획이 있으며 대표자는 최인아, 총자산은 27억5,500만원, 매출액은 22억1,000만원이다(한상헌 외, 2015, 30쪽).

호 인수(2003년) 아들 김현수(2013년)로 대표이사 승계.

* 충청투데이: 1990년 <대전매일>로 창간 후 경영난 겪자 정남진(2001년)이 인수해 <충청투데이>로 제호 변경(2005년)

⇒ 3개 신문 모두 외형상 주식 분산했지만 실제로는 1인 소유주가 가족이나 주변인 명의로 자본 나눠 소유

나) 경영실태

<표 2> 자산 및 부채비율

(단위: 백만 원, %)

구분	신문명	2011년	2012년	2013년
자산총계 ⁶⁾	대전일보	13,453	12,697	12,450
	중도일보	2,897	2,868	2,872
	충청투데이	5,770	5,946	5,632
부채총계	대전일보	12,721	11,950	11,649
	중도일보	1,090	1,404	1,007
	충청투데이	4,544	4,763	4,418
유동비율	대전일보	74.96	63.23	74.61
	중도일보	233.58	179.76	233.41
	충청투데이	178.90	182.67	196.90
부채비율	대전일보	1,736.40	1,599.57	1,454.68
	중도일보	60.30	95.84	53.96
	충청투데이	370.55	402.61	363.94

* 출처: 이상기·김위근(2013)16쪽; 이상기·김위근(2014)18쪽; 이상기·김위근(2015), 19쪽; <신문사 재무제표> 보고서; NICE평가정보; 금감원 전자정보공시센터 감사보고서; 한상현 외(2015), 35쪽에서 재구성.

* <대전일보>의 자산총계 120억~130억 원 <중도일보> 28억 원, <충청투데이> 56억~59억 원

* <대전일보> 자산만큼의 부채 가졌고 <중도일보> 연간 10억~14억 원, <충청투데이> 40억 원대 부채

* 기업 재무건전성 측정하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대전일보> 3개 신문 중 단기지급 능력 가장 부실.

<표 3>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구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전일보	6,400	8,700	10,000	9,800	10,393	11,185	11,519	11,312	10,846	10,989	10,132
중도일보	-	-	7,000	-	5,649	6,045	7,024	7,383	7,020	7,977	-
충청투데이	3,400	6,248	7,582	7,511	9,295	8,375	8,279	8,438	8,684	8,566	-

* 출처: 이상기·김위근(2013), 16쪽; 이상기·김위근(2014), 18쪽; 이상기·김위근(2015), 19쪽; <신문사 재무제표> 보고서; NICE평가보고; 대전언론문화연구원(2014), 203쪽; 한상현 외(2015), 33쪽에서 재구성.

* <대전일보> 100억 원,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연간 70억~80억 원 선을 유지했지만 이들의 2013년 한 해 매출액 합 275억3,200만원은 <부산일보>, <매일신문>, <경인일보> 한 개 신문의 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연 매출액의 10%도 안 돼⁷⁾

- 6)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해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대전지역 신문 가운데 자산 120억 원이 넘는 <대전일보>만 의무적인 외부감사 대상이다. 자산총액 70억 원 미만인 <중도일보>와 <충청투데이>는 의무적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무분석서 같은 곳에 정확한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 같은 데이터들이 잡히지 않아 이들 신문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 7) <부산일보>의 2014년 매출액은 414억2,500만원이었고 <경인일보>는 409억3,500만원, <매일신문>은 332억1,100만원이었다. <조선일보>의 2014년 매출액 3,412억9,200만원, <동아일보> 2,856억5,500만원, <중앙일보> 2,936억400만원이었다(이상기·김위근, 2015, 19쪽).

<표 4>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전일보	99	270	103	145	40	54	44
충도일보	-40	14	-344	145	-343	401	-
충청투데이	171	188	-447	155	21	31	-

* 출처: 오수정·이창훈·김갑순(2008), 71쪽; 오수정·김갑순·이창훈(2009), 94쪽; 심영섭 외(2010), 69쪽; 심영섭·김위근·이상기(2011), 206쪽; 심영섭 외(2012), 215쪽; 이상기·김위근(2013), 17쪽; 이상기·김위근(2014), 18쪽; 이상기·김위근(2015), 19쪽; <신문사 재무제표> 보고서; NICE평가정보; 금감원 전자정보공시센터 감사보고서; 한상현 외(2015), 34쪽에서 재구성.

* <대전일보> 매년 수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 이익 발생.

* <충도일보> 이익과 손실이 들쭉날쭉 많을 경우 연간 3억 원대 마이너스 기록.

* <충청투데이> 2010년 한해 4억여 원의 손실을 낸 것 제외한 나머지 기간 1억 원 안팎의 수익.

다) 자본 감소에 따른 언론시장 위축

<표 5> 유료부수 및 발행부수 현황

()는 발행부수

신문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전일보	27,763 (38,705)	27,342 (39,650)	27,857 (37,742)	27,293 (37,220)	28,098 (38,107)
충도일보	11,746 (20,023)	13,974 (22,600)	12,597 (20,441)	12,247 (21,270)	12,145 (22,193)
충청투데이	18,277 (27,803)	20,158 (29,500)	21,378 (35,000)	20,211 (30,200)	19,641 (31,020)

* 출처: 한국ABC협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발표자료.

* <대전일보> 2014년 말 기준 유료부수 2만8,098부, <충도일보> 1만2,145부, <충청투데이> 1만9,641부

* 3개 신문 2014년 유가부수 합한 5만9,884부 인구 151만 대전광역시 도시규모에 비해 형편없는 구독률

* 중앙지향적 편집과 토호세력, 권력자 중심 보도로 주민 외면

4.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연구문제 1> 지역 종이신문 기자들의 커리어 이동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지역 종이신문 기자들의 커리어 이동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기자의 정치권으로의 이동이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 <대전일보> <충도일보> <충청투데이> 2000~2014년 퇴직기자 195명 대상 설문조사

* 언론사, 직급, 연령, 출입처별 29명 대상 심층인터뷰

4. 연구결과

1) 출신지역, 출신학교 및 주 출입처

* 첫 종이신문 10년 4개월, 총 종이신문 평균 16년 5개월 근무 후 이직

* 경영난, 신문 휴간, 노사갈등, 인터넷신문 창간, 선거 시기 때 주로 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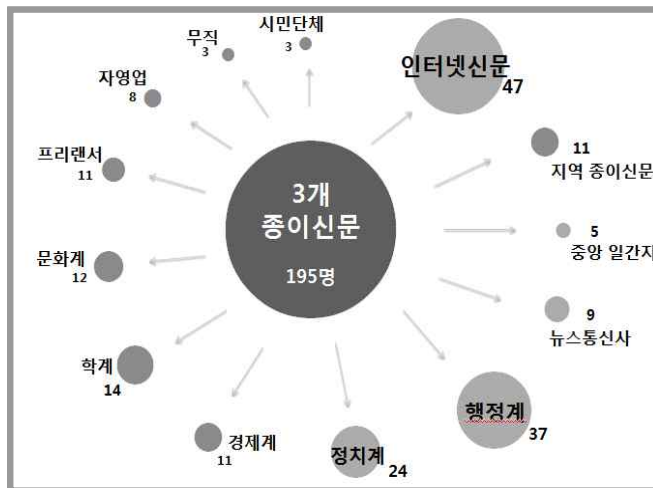
* 대전(59%)출신 많고 대전고(13.3%) 충남대(40.0%)가 주된 학맥

* 정치·행정(35.9%) 출입자 월등히 많아 경력이동에 출입처 결정적 영향 보여줌

“정치 출입하다 정치인과 친분 두터워져 보좌관으로 옮겨”

“대학이나 기업을 담당하다가 자리 생겨 이직”

2) 커리어 이동의 유형화



<그림 1> 커리어 이동 분포도

* 인터넷신문(24.1%)→ 행정계(19.0%)→ 정계(12.3%)→ 학계(7.2%)→ 문화예술계(6.2%)→ 경제계(5.6%)

→ 프리랜서(5.6%)→ 지역종이신문(5.6%)→ 뉴스통신사(4.6%)→ 자영업(4.1%)→ 중앙일간지(2.6%)

→ 시민단체(1.5%)→ 무직(1.5%)

* <대전일보>, <충청일보>는 인터넷신문으로의 이동이 많았고

<충청투데이>는 행정계(26.3%) 비율이 인터넷신문(24.6%)보다 다소 높아

3) 커리어 이동 원인

* 자발적 퇴직(34.9%), 경영난·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직(34.9%), 정년 퇴직(4.1%)

* 퇴사 이유: 보수·복지 미흡(31.8%) 구조조정 등 경영위기(17.4%), 성취감 및 만족감 부재(4.6%), 인사문제(4.6%), 정년퇴직(4.1%), 광고 및 영업활동 부담(3.6%)

* 이직계기: 직장상사 및 주변인 소개(26.2%), 출입처 업무와 연관성(24.6%), 출신지역 등 지연(18.9%), 출신고교 및 대학 등 학연(9.7%), 대학원과 자격증 등 전문성 강화(5.6%)

* 노사갈등과 경영난을 겪으며 내부노동시장이 현저히 축소되고 있으며 언론인의 타 직업으로의 이동 강화시켜 언론 내부노동시장적 특성 약화

4) 새로운 장에서의 만족도

* 새로운 직업에서의 만족도 5점 척도(‘전혀 만족 못해’ 1점, ‘매우 만족’ 5점): 평균 3.26점

* 공무원 이직자 만족도 4.19점으로 타 직업 비해 월등히 높아

⇒ “보수·복지 등 안정적 생계유지” “광고와 구독, 사업수주 부담 없어”

* 중앙일간지 3.80점> 정계 3.54점> 자영업 3.45점> 학계 3.33점> 인터넷신문 3.11점> 문화예술 3.08점>

경제 3.00점> 지역종이신문 2.27> 프리랜서 2.42점> 뉴스통신사 2.78점> 시민단체 2.00점

5) '폴리널리스트'와 저널리즘

- * 자치단체장, 정치인과 연줄 통해 '선후배', '형님·동생' 관계... 출입처를 커리어 이동 징검다리
- * 정치인은 선거 치르기 위해 "홍보와 여론관리 능력을 가진 기자 필요"
- * 정치 출입기자는 "정치인의 대변인이거나 보좌관으로 이동 뒤 당선되면 자치단체 홍보담당자로" 이직
⇒ 신문 소유주 뿐 아니라 기자들까지 언론의 상징자본 사유화(私有化)로 저널리즘 기능 약화
- * 기자들 '언론→정치→언론' 옮기며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권력-언론 관계 허물어져
- *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부정적 기사 차단하는 '언론관리' 역할
⇒ "권력과 언론 부적절한 만남"으로 지역신문 저널리즘 기능 훼손
- * 언론 환경감시 기능 약화로 독자 이탈하며 기자들의 전문직업인의식 붕괴 및 직업정체성 훼손

5. 논의와 결론

- * <대전>, <중도>, <충투> 15년간 이직한 기자 대상 커리어 이동 경로와 원인 분석
- * 경영난, 노사갈등, 업무 가중 같은 내부여건과 인터넷신문 창간, 선거 등 외부요인으로 이직
- * 보수·복지 미흡, 미래비전 부재, 구조조정 등 경영위기, 성취감 및 만족감 부재 등으로 이직
- * 기자들 직업이동에 주변인 소개, 학연·지연 같은 '연줄'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작용
- * 인터넷신문, 행정계, 정계, 학계, 문화예술계, 경제 등 직업적 외연 확대됐지만 업무 면에서는 보도자료 쓰기, 칼럼 기고 대필 등 기자 때와 비슷
- * '폴리널리스트' 기자들과 선후배 유지하며 부정적 기사 차단하고 언론관리 역할⇒ 저널리즘 장 경계 허물어뜨리고 지역언론 기능 훼손

참고문헌

- 권혁남(1994). 지역신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 . <한국언론학보>, 31권, 5~27.
- 김성재(2005). 언론노동의 현실과 지역 언론인의 정체성. <언론과학연구>, 5권 2호, 105~140.
- 김창희(2002). 대전지역 기자들의 근무여건 및 직업만족도 조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대전언론문화연구원(2014). 『대전충남언론100년』.대전: 대전언론문화연구원
- 류기락(2009). 일자리 이동과 내부노동시장: 한국노동패널(1998~2005)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권 4호, 37~76.
- 박진우·송현주(2012). 저널리스트 전문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문직 노동과 직업전망에 대한 위기의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57호, 49~68.
- 배정근(2012).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업무량 증가 심화. <신문과 방송>, 500호, 21~30.
- 심영섭·김위근·양승혜·나인선(2010). 『2010 신문산업 실태조사』.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심영섭·김위근·이상기(2011). 『2011 신문산업 실태조사』.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심영섭·김위근·오수정(2012). 『2012 신문산업 실태조사』.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심영섭·김위근·이상기(2013). 『2013 신문산업 실태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심영섭·이은주·김위근·이상기(2014). 『2014 신문산업 실태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오수정·이창훈·김갑순(2008). 『2008 언론경영성과분석』.서울:한국언론재단.
- 오수정·김갑순·이창훈(2009). 『2009 언론 경영성과분석』.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상기·김위근(2013). 『2013 신문사 재무분석』.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상기·김위근(2014). 『2014 신문사 재무분석』. 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상기·김위근(2015). 『2015 신문사 재무분석』.서울:한국언론진흥재단.

임영호·김은미·박소라(2004). 한국 일간지의 언론인의 커리어 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3호, 61~89.

장행훈(2003). 기자들 왜 신문사를 떠나는가. <신문과 방송>, 393호, 66~70.

한상현·김재영·양선희·이승선(2015). 『지역언론 발전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Benson, R.(1999). Field theory in comparative context: A new paradigm for media studies. *Theory & society*, 28(3), 463~498.

Doeringer, P. & Piore, M.(1971). *Internal labou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M.E. Sharpe.